

## 주말휴일 행사장·시장·거리서 ‘한표라도 더...’



### #일주 이슈

광산을 민형배·이낙연 열띤 선거전 진보당, 꽃 실은 ‘자전거유세’ 눈길 광주 온 조국 “뜨거운 지지 늘 생각”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휴일을 맞은 광주·전남지역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광주에서는 전국적 관심이 쏠린 광산을 후보들이 지난 30일 이른 아침부터 유세 차량 위에 올라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오전 민형배 민주당 후보는 신창 IC 인근에서 나들이객에게 인사를 진행한 뒤 쌍암공원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오후 5시에는 월곡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광산갑 박균택 후보와 합동 유세를 진행하고 오후 8시부터는 거리유세를 펼치며 밤 늦게까지 지역민들을 만났다.

민 후보에 맞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같은 날 광주여대 체육관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31일 부활절을 맞아 광주의 한 교회 앞에서 신도들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배구대회에 참석한 주민 등에게 인사를 건넸고, 같은 당 소속인 광산갑과 북구를 후보의 지원 유세도 펼쳤다. 오후에는 수완호수공원에서 지역민들과 즉문즉답 시간을 가진 후 쌍암공원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북구에 출마한 진보당 윤민호 후보는 꽃을 가득 실은 ‘자전거유세단’을 구성해 거리 곳곳을 누비며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는 “자전거유세단을 통해 민주당의 ‘씩씩이 정치’로 본선이 사라져 버린

광주에서 정치축제와도 같은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선거를 만들고 싶었다”며 “정성스레 준비한 꽃을 선사 받듯 광주 시민들이 대접받는 정치로 바꾸겠다는 다짐이다”고 자전거유세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 중 출마를 선언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옥중 선거를 치르게 된 서구갑의 송영길 소나무당 후보는 가족들이 대신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송 후보의 부인 남영신씨와 아

들 송주환씨 등은 서구갑 지역구 내 한 교회에서 새벽 예배 참석을 시작으로 광주 여상 동문화 등산대회 송영 인사와 광주 시청에서 열린 견기대회, 양동시장 등을 방문했다.

비례정당도 지역민 표심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서구 풍암저수지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방문해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조국’ 이름을 연호했고, 조국 대표는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 시민들에게 화답했다.

조 대표는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 후 광주나 호남을 찾으면 잔하다는 말 대신 ‘속이 시원하다’, ‘제대로 싸워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며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가 왜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순천·광양·곡성·구례에서는 권향엽 민주당 후보가 퇴근 시간 광양시 증마동 호반아파트 사거리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진행했다. ‘자전거유세’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같은 지역구의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전동 자전거’에서 잠시 내리고 유세차에 올라 ‘삼진강의 기적을 일으키겠다’며 유세를 진행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는 문금주 민주당 후보가 장흥토요시장과 강진 병영성축제 개막 현장 등을 찾아 집중 유세를 이어갔으며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서 출마한 이개호 민주당 후보는 함평 월야 농협주유소 앞에서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김선우 새로운미래 후보는 담양군 창평장을 찾아 지역민들을 만났다.

해남·완도·진도의 박지원 민주당 후보는 31일 해남 금강골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해남성당 부활절 미사 등에 참석해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2·3면 **박지혜·김은지** 기자

## 전남도, 지방시대 성공 견인 ‘기회발전특구’ 신청

서부·동부·연계권 3개 지구 구성 첨단전략·정에너지·문화콘텐츠 해상풍력반도체 등 6개 산업 확정

전남도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선다.

전남도는 ‘첨단전략산업(서부권)’, ‘정

에너지(동부권)’, ‘문화콘텐츠(연계권)’ 등 3개 지구를 구성, 지방시대 성공 모델 창출을 견인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상한 면적 200만 평 중 131만 평을 올해 우선 신청하고, 3개 지구 확장성과 신산업 수요를 고려해 내년에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2년 12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시작으로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어 후보지에 대해 입지, 수요기업, 산업현황 등 사전 조사를 하는 등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기회발전특구 준비에 박차를 가했

다. 이를 통해 최종 3개 지구, 6개 산업을 확정했다.

27개 앵커기업과 19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하는 등 기업 유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확정한 6개 산업은 △해상풍력(목포·해남 16만 평, 2개사) △반도체 및 항공정비(무안 9만 평, 8개사) △데이터센터(해남 20만 평, SPC) △광양만권 이차전지(광양·여수·순천 47만 평, 8개사) △수소

산업 클러스터(여수 34만 평, 5개사) △문화콘텐츠(순천 5만 평, 3개사)다.

▶관련기사 17면 **박지혜** 기자

**광주사람들 (601/1000)**

**손성호**  
광주공고 학생

▶관련기사 17면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 밸런스 라인

XPERON  
엑스페론